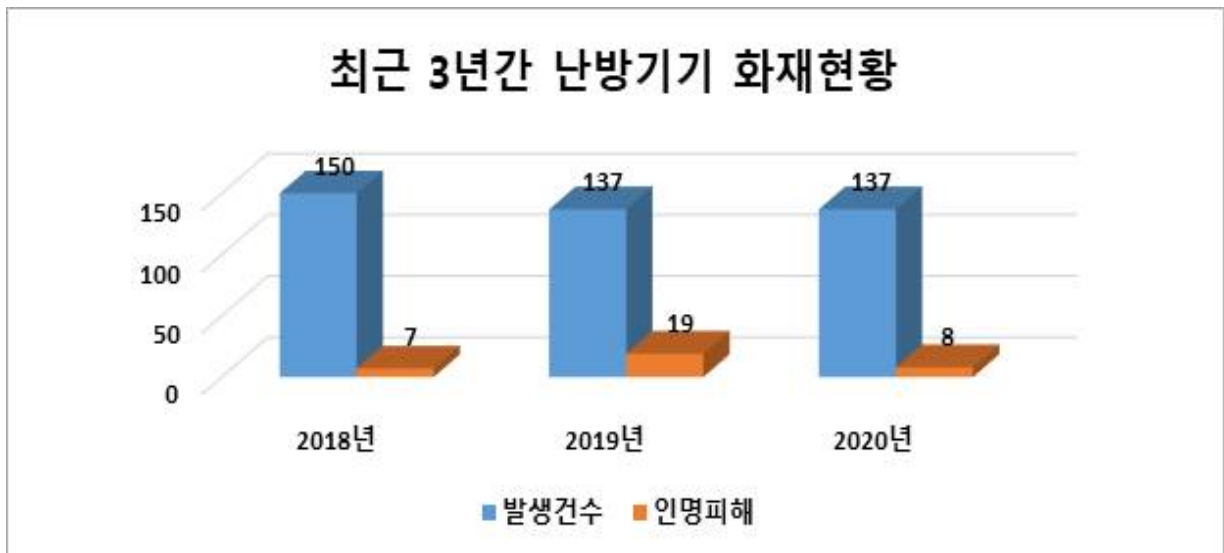


1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

=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 주의보 =

□ 1월은 본격적인 겨울철 보일러 등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간 난방기기 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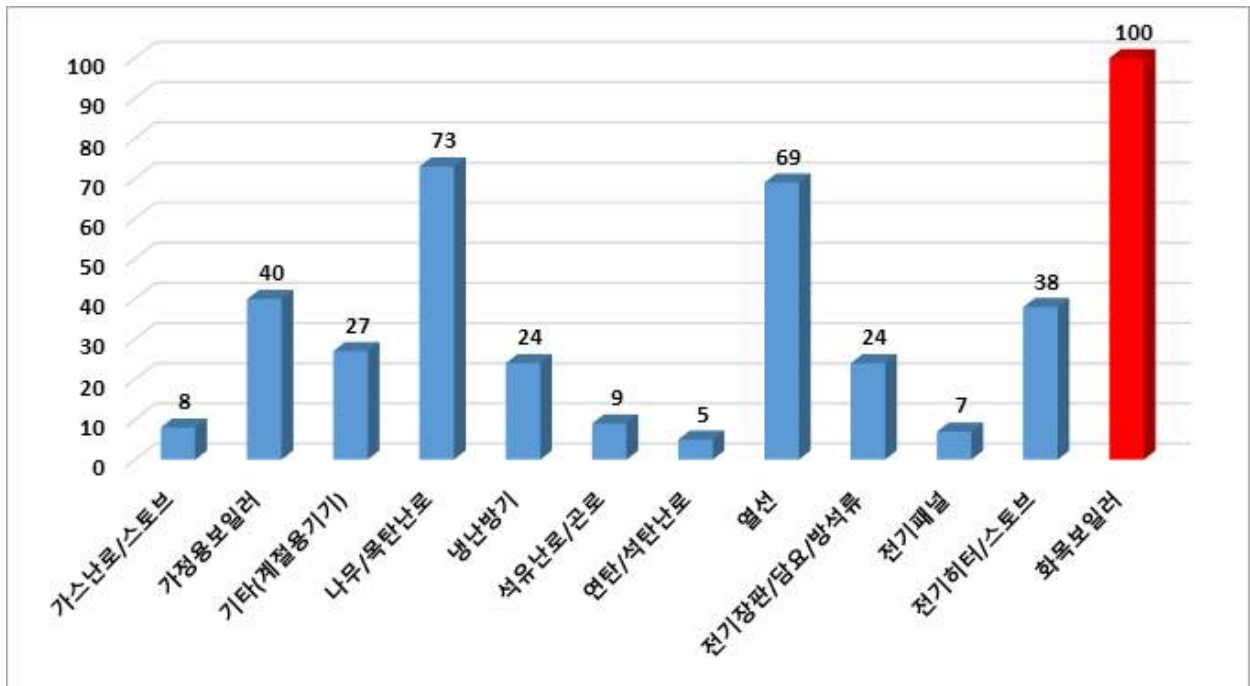


○ 최근 3년('18 ~ '20년)간 총 42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 34명(사망1, 부상 33), 재산피해 7,950,187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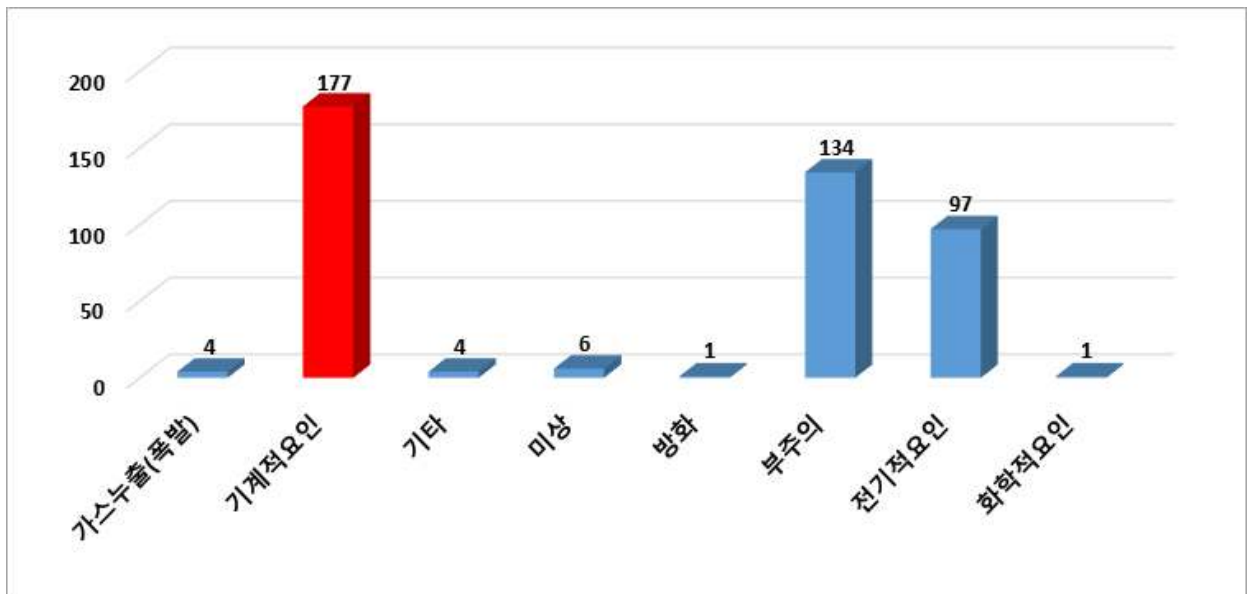
구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24	34	1	33	7,950,187
2018년	150	7	1	6	1,060,323
2019년	137	19	0	19	5,262,183
2020년	137	8	0	8	1,627,681

□ 난방기기별 화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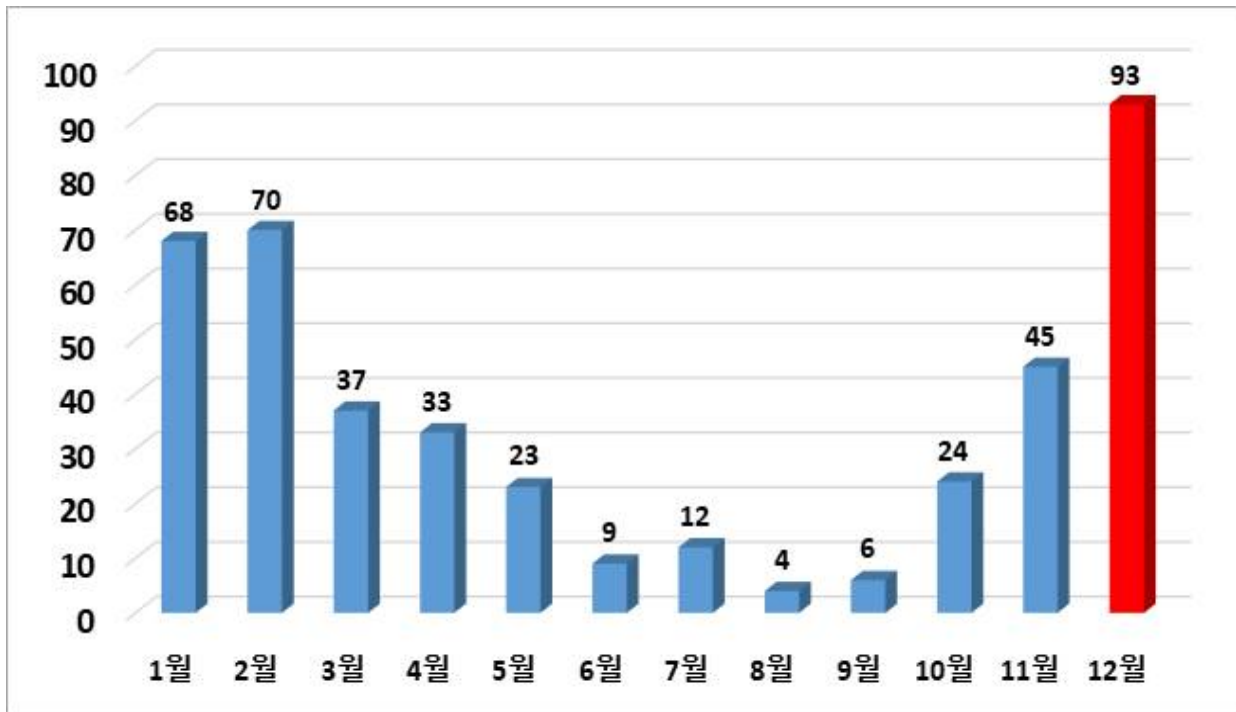
-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난로)가 전체의 24%(100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무/목탄 난로 17%(73건), 열선 16%(69건), 가정용 보일러 9%(40건), 전기히터/스토브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 원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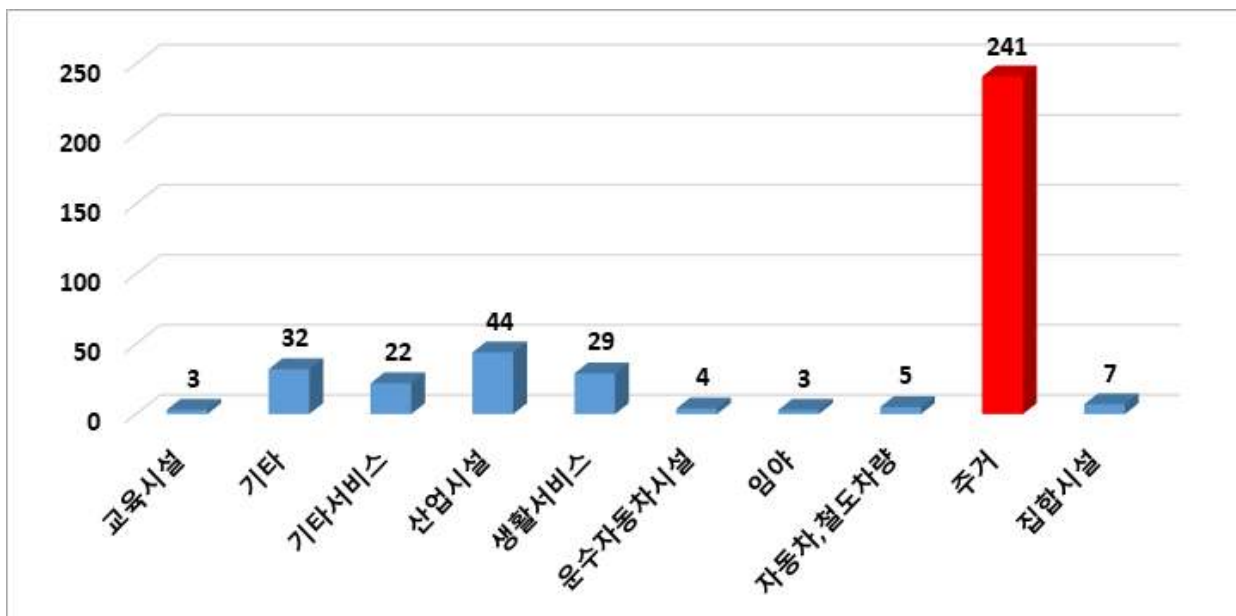
- 발생 원인을 보면 난방기기의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전체의 42%(177건), 특히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되어 화재 발생 등 부주의 32%(134건), 전기적 요인 23%(97건) 등으로 나타났다.

□ 월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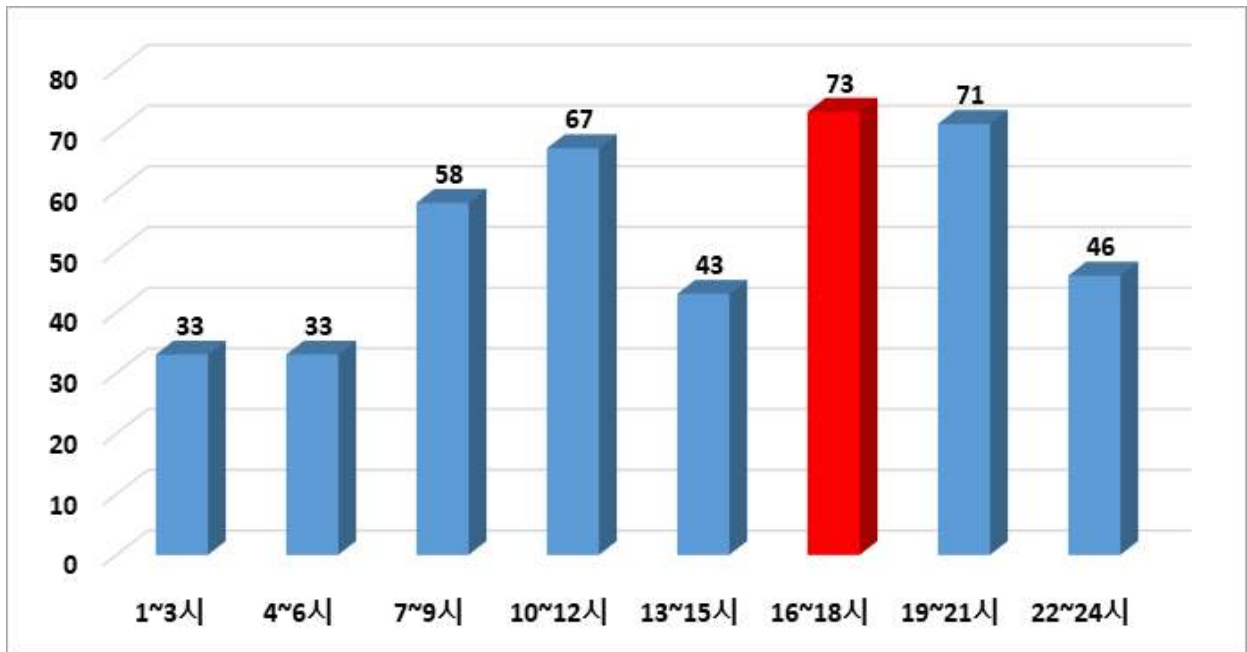
- 월별로 보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에 급증하여 이듬해 2월까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소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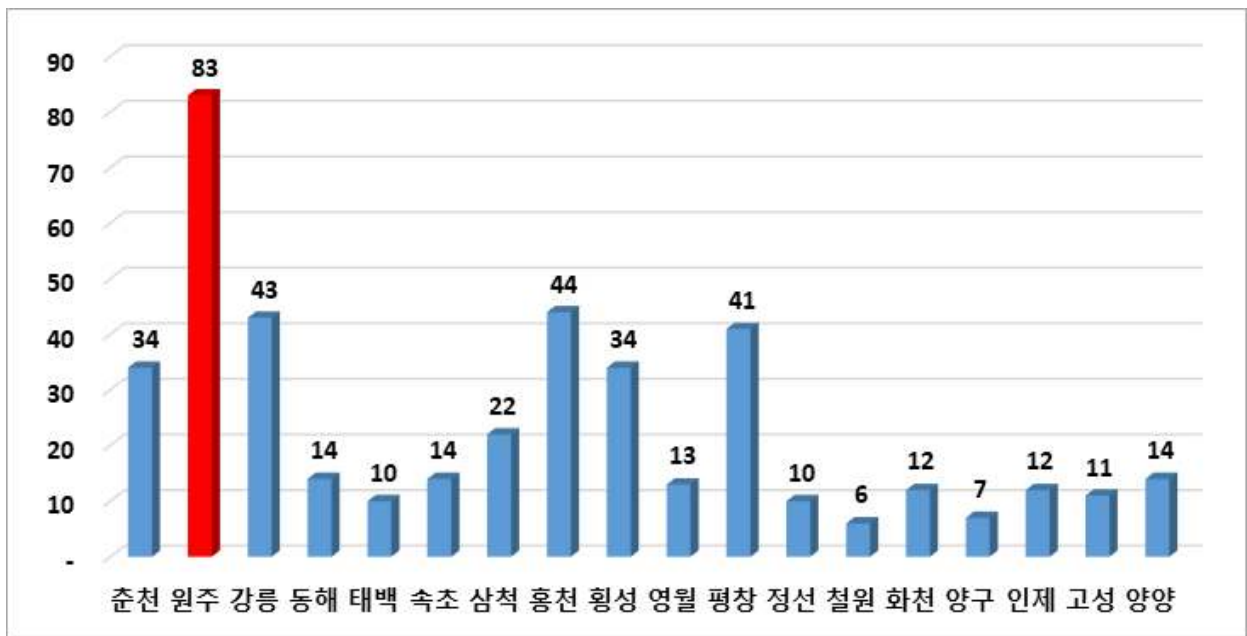
- 화재발생 장소별로 보면 주택이 57%(241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10%(44건), 생활서비스시설 7%(29건), 기타서비스시설 5%(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 현황



- 시간대별 현황을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가장 많은 17%(73건), 오후 7시~9시 17%(71건), 오전 10시~12시 16%(67건) 등의 순이었다.

□ 지역별 발생현황



- 지역별로 보면 원주 20%(83건), 홍천 10%(44건), 강릉 10%(43건), 평창 10%(41건), 횡성·춘천 8%(34건), 삼척 5%(22건), 양양·동해·속초 3%(14건), 영월 13건, 화천·인제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화재예방 요령**

- 화목보일러는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두고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는 연료(땃감)를 두지 말아야 하며, 특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나무를 넣어 과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또한 불씨가 있는 재를 방치할 경우 바람에 의해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물로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 동파방지용 열선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시에는 열선을 여러 번 겹쳐 사용하지 말고 간격을 일정하게 감아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 전기장판류는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요, 라텍스 매트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관할 경우에는 열선이 끊어지지 않게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또한 온도조절기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
- 전기히터는 의류, 커튼, 소파 등 가연성 물질에 근접해 사용할 경우 복사열에 의해 발화되기 때문에 적정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 화재 시 즉시 소화기 가능하도록 난방기기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를 감지하여 알려 줄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여야 한다.